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	■ 국립전주박물관 2022 - 16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서승희 TEL. 063-220-1064 hongbo0602@korea.kr
	■ 2022. 05. 23. 배포 ■ 붙임: 포스터 ■ 총 3매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홍진근 국립전주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는 이집트 특별전의 유물과 연계한 체험행사로, 고대 유물과 현대 공예의 어우러짐을 통해 보다 다채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고 밝혔다.

특별전 ‘이집트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의 ‘미의 여신 하토르가 장식된 거울’ 연계 유리공예 「거울 만들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6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특별전 ‘이집트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의 유물 ‘미의 여신 하토르가 장식된 거울’을 연계해 유리공예 ‘거울 만들기’를 진행한다.


오는 6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 국립전주박물관 열린공간 안에서 두 차례 운영하는 이번 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각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오는 5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6월 1일(수) 오후 5시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참조)

이번 ‘거울 만들기’는 거울 유리와 한복에서 사용하는 무늬가 들어간 고희유리¹⁾를 결합하여 한국적인 느낌의 손거울을 제작한다.

두 개의 세공된 유리를 동테이프로 감아 고정하고, 그것을 직접 납땀하여 붙이는 과정을 체험한다. 또한 유리 열쇠고리를 만드는 특별체험도 준비돼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붙임: 행사 포스터

	<p style="font-size: small;">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문화행사팀 사업담당 서승희 (☎ 063-220-10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1) '고흐유리'란 화가 고희의 작품세계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고희의 작품과 같은 느낌을 주는 무늬를 가진 유리를 뜻한다.



유리공예

특별전 <이집트-삼, 죽음, 부활의 이야기>
'미의 여신 하토르가 장식된 거울' 연계



거울



만들기



6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4시

국립전주박물관
열린공간 온



예약 접수

5.27.(금) 10:00 ~ 6.1.(수) 17:00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

성인 선착순 총 40명

- 강연 당 20명
- 전화접수 불가
- 1인 1개 신청 가능
- 아동·청소년 입장 불가

①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geon.ltmuseum.go.kr) 참조